

신나이가이멘의 니트부 - 독자적인 실로 해외시장에도 판매

신나이가이멘(新内外綿)의 니트부는 ① 어패럴과의 사업강화 ② 독자성(獨自性) 있는 실을 활용한 텍스타일 판매 ③ 해외시장에서의 판매 등을 앞으로의 중점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어패럴과의 공동사업은 이제까지의 거래선뿐만 아니라 새로운 거래선과도 강화해 나간다. 도쿄오(東京)시장을 중심으로 개척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원료부터 전념한 독자성 있는 실을 활용한 스토리성(story性)이 있는 신소재 만들기를 고유의 특성으로 내놓고 있다.

또한 현재는 텐셀·모혼(混) 시리즈(series) “세루라나”나 기모(起毛)관계 등이 순조롭게 잘 팔리고 있어 추동절소재의 비율이 높는데, 앞으로는 춘하절소재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방직부문과의 제휴를 굳게 하여 독자성이 있는 실을 활용하면서 상품군(商品群)을 확충할 방침이다. 2007년 춘하절에는 텐셀이나 텐셀·면 등의 톱(top) 염색관계를 활용하여 상품화할 생각이다.

미국시장으로의 구체적인 상담(商談)도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레이디스용에서 특징있는 실을 사용한 상재(商材)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 2006년 가을부터 해외생산을 시험적으로 일본산 실로 상하이(上海)주변에서 편성하고 가공하여, 현지에서 생지로 납품(納品)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였다. 중국생산에 대하여는 2007년 가을철용 상담에서 감촉(感觸)을 확인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